정부 공모사업 외면한 광주시…AI중심도시 도약 '말 뿐'

국비 472억 투입 AI 설계 팹리스기업 지원사업 공모조차 하지 않아

시, 과기부 100% 국비지원 공모사업 준비에 '선택적 포기' 입장 밝혀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기업을 유치해 AI(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나선다는 광주시가 최근 정부의 팹리스 기업 지원사업에 공모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는 100% 국비지원사업이 아니어서 '선택적 포기'라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있을 공모에 광주시가 무조건 선정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초거대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대구가 선정돼 선제적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AI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 맞춤형 인프라 사업에 경기도 성남 판교와 대구가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고가의 반도체 검사·검증 첨단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성남 판교와 대구에 각각 마련된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이번 달까지 사업공모 절차를 거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에 경기도 성남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사·검증 지원' 사업에 경북대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지원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산업부 공모사업은 국비·지자체 예산 분담비율이 7대 3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팹리스 기업들의 발길이 광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연일 홍보하는 광주시가 실제 펩리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사업에도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국내의 중소 팹리스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설계·성능 검증 장비를 구축해 팹리스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올해부터 국비 322억 원 등 모두 45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추경액 95억1000만원이 집행된다.

사업을 통해 시제품 칩 제작 전, 칩의 실제 동작 여부를 가상환경에서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및 에뮬레이터를 포함해 시제품 칩 제작 후 성능평가 및 표준 적합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고성능 계측 장비와 분석 시스템이 마련된다.

대구시청 별관 내 팹리스 기업 전용 검증공간이 마련되는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 사업'(총사업비 217억 5000만원·국비 150억원)은 AI사업 인프라를 비수도권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로봇·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에서 요구하는 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칩 설계 단계에서 검증과 확인(Verification & Validation, V&V)을 지원하는 시설을 비수도권에 설치하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과기부 공모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공모와 유사한 공모사업이지만 과기부 사업은 100% 국비지원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광주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1대 대선 꼭 투표합시다" 12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교육감, 5개 구청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별취재단=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국내 최대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광주서 열린다

9월 4~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대한민국 박물관·미술관의 모든 것을 오는 9월 광주에서 볼 수 있다.

광주시가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제2회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유치했다.

광주시는 제2회 박물관·미술관 박람회'가 9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급변하는 공동체 속 박물관 미래'라는 주제로 열려 국내외 박물관·미술관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조명한다.

박람회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과 관련 산업체, 문화기획사 등이 다수 참여한다.

박람회에서는 기획전시, 포럼·강연, 체험행사, 실감콘텐츠, 비즈니스, 박물관·미술관 기념품 판매 등 전시·체험·산업을 아우르는 내용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난해 1회 박람회는 부산에서 열렸다. 1회 박람회에서는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 등 수집가들의 소장품이 재구성됐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ICOM(국제박물관협의회)의 주제를 반영한 글로벌 박물관 트렌드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인공지능(AI)·저출산·고령화·다문화 등 사회 변화와 박물관의 접점을 모색하는 전문가 강연·국제 세미나도 열린다. 또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관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마당이 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도심형 체험 전시와 연계해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광주를 알리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대한민국 3대 문화시설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주화역사관 광주 설립,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는 광주의 문화 감성에 신기술과 세계적 담론을 결합한 새로운 문화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관람객의 이목을 사로잡고, 광주의 미래 문화를 함께 그려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6 전국도서관대회' 유치에도 성공해 광주에서 국내·외 문화행사의 지속 개최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템플스테이·사찰요리로 인도 관광객 유혹

인도 여행업계·전문가 초청 팸투어

불교문화 발상지 특수성 감안 기획

전남도가 사찰 음식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해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12일 전남관광재단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11일 장성 백양사에서 인도 여행업계 및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백양사 정관스님이 참여하는 사찰음식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정관스님은 사찰 음식의 전문가로 단순한 채식 요리를 넘어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의 하나로 사찰 음식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세계 여행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차별화된 지역 관광 콘텐츠를 발굴,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불교 문화 발상지로 채식 중심 식문화를 가진 인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획됐다.

팸투어 행사에는 인도 현지의 영향력 있는 여행업계와 언론 전문가들이 참여해 큰 주목을 받았다.

전남관광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도 시장에서도 전남 사찰음식의 고유성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향후 사찰음식과 명상, 다도, 고택 체류 등을 결합한 인도 여행객 맞춤형 웰니스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 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남 고유의 식문화가 세계인에게 치유와 영감을 전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 협력과 지속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의회,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 본격 가동

동부권 산업구조 재편 등 목표

전남도의회가 '전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본격 가동했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석화산업과 철강산업 위기대응에 나섰다.

특위는 이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의 후속 대책 점검과 유관기관과의 정책협의, 기업·노동계 간담회, 전문가 정책토론회 등 다각적인 현장 중심 활동 전개를 약속했다.

특위는 동부권 산업구조 재편과 고용안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목표로 구성됐다.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위는 동부권(여수·광양) 의원들로 구성돼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대현 위원장(민주당·여수2)을 비롯해, 박경미 부위원장(〃·광양4), 이광일 부의장 (〃·여수1), 강문성(〃·여수3), 최병용(〃·여수5), 최무경(〃·여수4), 강정일(〃·광양2), 주종섭(〃·여수6), 임형석(〃·광양1), 김화신(〃·비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서대현 위원장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전남 경제의 중추 산업이자 고용 기반이나, 현재는 심각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정부 차원의 보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산업구조 재편 로드맵을 이끌어내고 지역 산업생존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